

파이낸셜뉴스

## MZ세대 위한 아트페어 '더프리뷰 한남 with 신한카드' 개최

박지현 기자 | 2021. 06. 01



'더프리뷰 한남 with 신한카드'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가 업계 최초로 '아트' 사내벤처 '아트플러스(Art+)'를 출범하고 첫 사업으로 아트페어 '더프리뷰 한남 with 신한카드'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아트페어는 신한카드가 스폰서십을 맺고 있는 한남동 블루스퀘어 네모(NEMO)홀에서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명 '더 프리뷰'는 신진 작가와 갤러리를 미리 보여주는 특별 무대이자 신한카드가 미술 시장에 진입하는 데뷔 무대임을 알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제1회 '더프리뷰 한남'에는 갤러리 스탠, 디스위켄드룸, 갤러리 이알디 등 신진 작가들을 중점적으로 프로모션 하는 설립 3~5년차의 갤러리와 N/A(엔에이), 을지로 오브, d/p(디피), 중간지점 등 MZ세대 기획자들이 운영하는 신생공간 포함 총 32곳의 갤러리가 참가해 128명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동세대 팬층을 꾸준히 확보해온 을지로와 강북의 '신생공간'들은 첫 아트페어인 '더프리뷰 한남'을 통해 컬렉터, 타 갤러리스트 등 기성 미술시장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대안 마켓으로 분류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이들 공간들과 기존 미술시장 내에서 입지를 다져온 신진 갤러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드문 기회에 미술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시시박 '멜버른' (2017) /사진=신한카드

'미리보기(preview)'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프리뷰 한남'은 아트페어에 참가한 이력이 없는 신진 작가들을 앞세워 가장 최신의 작업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출품 작가의 나이나 경력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최연소 참가자인 1996년생 이목하를 비롯해 90년대생 작가들의 작업이 대거 소개된다. 또한, 차지량, 박문희, 이병찬 등 그간 미술관, 비엔날레로 잘 알려졌다 전시 중심 작가들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더프리뷰 한남'은 최초 참가비 없이 작품이 판매될 경우 전체 판매금액의 20%, 최대 100만원을 후불로 지불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신진 갤러리의 아트페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양극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갤러리의 역할을 강조해 건강한 미술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한카드의 ESG경영의 일환으로 성장성 있는 신진작가 양성뿐 아니라 예술계의 중장기적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신한카드는 각 파트별로 우수한 부스 디스플레이와 전시 구성을 선보인 갤러리를 선발하는 갤러리 어워드를 시상해 선정된 갤러리 2곳의 참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등 참가 갤러리에 대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마이 아트 플렉스’ 앱 이미지 /사진=신한카드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개최하는 아트페어와 동시에 미술품의 N차 마켓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작품 및 작가세계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아트 플랫폼 ‘마이 아트 플렉스(My Art Flex)’도 론칭한다. 앱을 통해 페어에 방문하지 않아도 ‘더프리뷰 한남’의 모든 작품작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고 채팅 기능을 더해 참가 갤러리와 실시간 소통을 지원한다. 추후 소장품, 전시정보 등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아트 플렉스 공간을 개설하고 전문가 클래스와 강연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담아 아트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 아트 라이프를 추구하는 MZ세대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6011107353333>)